

2019학년도 송실대학교 신입학 수시
논술고사 문제지(2교시: 인문계열)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 주의사항(문제 1-2번 공통)

- ①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답란과 해당 문제가 일치해야 함.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할 경우 '0'점 처리함)
- ② 답안지에 제목과 소제목을 달지 말 것.
- ③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지 말 것.
- ④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표시(" ")를 할 것.
- ⑤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할 경우 외에는 본문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 ⑥ 검은색 필기구(연필, 볼펜, 사인펜 등)만을 사용할 것. (그 외의 색 필기구 사용은 부정행위에 해당함)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예술 감상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뱅크시의 실험적 행위가 예술 감상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논술하시오.(1,000±100자, 60점)

<보기>



- ❶ 뱅크시는 가짜 수염과 모자로 위장을 하고 유명 미술관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몰래 붙이고 나오는 실험적 행위를 했다.
- ❷ 많은 관람객은 뱅크시의 그림을 명확히 오해했으며, 직원들마저 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
- ❸ 뱅크시가 그린 그림의 제목은 「당신은 아름다운 눈을 가졌군요」이다.

<뒷면에 계속>

제시문 【가】

우리가 미술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다. 미술에는 언제나 발견해야 될 새로운 것들이 있다. 위대한 미술 작품들은 우리가 그 작품을 대할 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처럼 다함이 없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미술은 그 자체로 불가사의한 법칙과 모험을 가지고 있는, 가슴을 설레게 하는 자극적인 세계인 것이다. 미술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누구도 미술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작품들은 잘 감상하기 위해서 상투적인 미사여구나 진부한 표현 같은 것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면서, 작품 속의 모든 암시를 포착하고 숨겨진 조화에 감응*하려는 참신한 마음가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미술에 관해서 그릇된 생각을 조장하는 설익은 지식을 갖는 것보다는 미술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훨씬 좋다.

비평가들이 썼던 단어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상이한 문맥 속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참신한 눈으로 그림을 보고 그 그림 속에서 새로운 발견의 향해를 감행하는 것은, 그 그림에 대해 재치있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지만 더욱 값진 일이다. 우리가 그런 여행에서 무엇을 얻어 가지고 돌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감응(感應) : 어떤 느낌을 받아 마음이 따라 움직임.

제시문 【나】

그림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그린 걸까? 왜 저 색을 사용하였을까? 저 색과 사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작품을 마주한 우리는 작품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작품을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특정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다면 미술 작품은 어려운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우리는 ‘명화’나 난해한 실험적 작품을 대하기 전에 그 작품에 대한 사전 공부를 한다. 어느 시대에 그려졌으며, 작가는 누구이며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등을 알아본다. 이와 같이 작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 작품을 대하면, 그 작품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게 되거나 잘 이해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작품에 따라 이러한 사전 학습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사전에 학습한 지식들이 작품 감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작품 감상에서 사전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활동이다. 인간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색채나 모양을 인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감각→지각→인지’라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처럼 눈으로 본다는 것은 복합적인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전 지식 못지않게 감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사전 지식에 맞추어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감상의 의미를 기존 지식의 확인 정도로 제한하는 것과 같다.

제시문 【다】

전통적으로 사회학자들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 혹은 직업을 가지고 계급을 구분해 왔다. 그러나 한 사람의 계급적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생활양식, 소비 패턴과 같은 문화적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여러 사회 집단들이 자신들의 지위 상승을 위해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연구하였다. 여기서 ‘자본’이란 특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 도움이 되는 자원을 의미한다.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은 부(富)와 같은 물질적 자원을 가리키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인적 관계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계급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살거나 자기들만의 인맥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인맥이 사회적 자본이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 외에 지식, 취향, 개인적 스타일과 같은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도 지위 상승의 유용한 자원이 된다. 예를 들어, 일부 엘리트층은 발레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취향을 개발함으로써 자기들만의 취향의 동질성을 형성하고, 발레와 클래식 음악을 모르는 집단과 스스로를 구별 짓는다. 이러한 문화적 자본은 ‘아비투스(habitus)’에 의해 형성된다. ‘아비투스’란 상이한 조건의 개인들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획득하는 기본적인 생활양식이다. 유사한 조건에 있는 개인들은 비슷한 생활양식을 공유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집단별로 독특한 문화적 자본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르디외는 기존에 ‘경제’ 중심으로 논의되던 계급의 문제에 ‘문화’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유사한 조건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아비투스’를 공유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회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다른 계층과는 다른 독특한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한다.

<다음 면에 계속>

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보기>의 기부행위가 지니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800±80자, 40점)

<보기>

2008년 일선에서 은퇴한 후 빌 게이츠에 대한 수식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에서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인물'로 바뀌었다. 빌 게이츠는 탁월한 선천적 재능을 바탕으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1천억 달러에 이르는 부를 축적한 빌 게이츠는 "세 자녀에게 1천만 달러씩 주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겠다."라고 밝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빌 게이츠와 부인 멜린다 게이츠의 이름을 따 설립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산'은 워런 버핏이 재산 대부분을 기부한 단체로도 유명하다. 빌 게이츠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인물인 워런 버핏은 직접 자선 재단을 만들지는 않았다. 이미 자신이 보유한 주식 대부분을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한 바 있고, 2011년 하반기에만 4,000만 달러 이상의 주식을 여덟 곳의 자선 단체에 기부하였다.

제시문 【가】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역할들은 보기 드문 재능이나 일정 기간의 수련을 요구한다. 즉 모든 사람이 다 의사, 핵물리학자, 판사 또는 군사전략가가 될 수는 없다. 한 사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들에 재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유인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런데 재능이나 혹은 장기간의 훈련을 요구하는 역할들은 상당한 정도의 희생, 그리고 무거운 책임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들은 사회가 경제적 부, 권력, 위세 또는 이들에게 적절하게 부여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개인들에게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미화원보다 국회의원을 더 높이 평가하는 사회는 국회의원에게 보다 높은 지위와 보상을 제공하며, 목수보다 사회과학자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사회는 사회과학자들에게 보다 높은 지위와 보상을 주기 때문이다. 사회적 보상의 이러한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를 위해서 기능적이다. 왜냐하면, 희소한 재능을 요구하는 역할들은 가장 능력 있는 개인들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계층은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제시문 【나】

사회 제도나 정책 또는 관행은 각 개인의 가치관이나 욕구 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잘못된 의식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취업에서 학력이나 출신 학교를 중요시하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실력보다는 학력을 중시하는 학력주의나, 소위 '일류대' 진학에 열을 올리게 하는 학벌주의를 조장한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학력주의나 학벌주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의식 구조이다.

사회 제도나 정책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지만, 잘못 운영되면 사회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사회 제도나 정책이 올바르게 운영되면 사회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만, 그것에 결함이 있으면 오히려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자살, 학교 폭력, 서민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은 배려심을 길러주는 인성 교육보다는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교육 정책이나 입시 제도에 어느 정도 그 책임이 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 맞벌이 부부에 대한 자녀 양육 지원 체계의 미흡 등이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다】

어떤 사회는 장애인 시설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 장애인들이 독립성을 느끼며 살 수 있게 한다. 반면에 또 다른 사회는 제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뜻있는 일부 사람의 선의와 자비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우리는 후자를 '모욕 사회'라 부를 수 있다. 특히 물질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후자에 해당하는 사회라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사회적 모욕은 대부분 필요한 제도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탄생한다. 평등한 교육을 지향하는 학교에서 비장애인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해 만들면서도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한 칸만 만드는 일도 사실은 제도의 결핍에 해당한다.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 교육 대상자들은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후자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을 느낄 때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미비한 제도를 보완할 수 있어야 비로소 '모욕 사회'에서 진일보한 '품위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

<뒷면에 계속>

제시문 【라】

생산에 기여한 것에 비례하여 각자의 분배 몫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기여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근면과 창의력으로 사회의 생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많이 받고, 기여가 적은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도,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도 모두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베짖이와 개미가 똑같은 몫을 분배받는 것은 부당하다. 만일 생산의 기여도에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받는 것이 옳다고 하면 무위도식도 정당하다는 잘못된 결론이 도출된다.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 권리와 책임 하에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와 가족의 생계는 국가나 친척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이 행동한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독립심과 자립심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된다.

iphak.ssu.ac.kr

<끝>